

## 세월호 참사는 한국적 홀로코스트의 전형인가?

차명제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이 글의 제목에서처럼 3백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형 선박 침몰 사고라 해서 6백만 명 이상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것은 분명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에서는 서해 페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경주 실내체육관 붕괴 등의 사고로 수천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 참사들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불법, 탈법, 부정과 부패가 근본적 원인이 되었으며 구조 과정에서 조차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우왕좌왕했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때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판박이처럼 재현되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전자들에 비해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었다. 선박직 선원들은 대다수 구조된 반면에 승객들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한 채 선박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점이다. 배를 최후까지 책임져야 할 선원들이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안에 가둔 채 그들만의 비밀통로를 통해 탈출한 것이다. 승객들을 구할 1 시간 이상의 기회(golden time)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 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악의적으로 3백여 명 이상을 살해한 대량 학살 행위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New York Times는 이들의 행위를 악마적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선박직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할 시간이 충분했었음에도 그 많은 인명이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그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지탄하는 것이리라.

세월호 침몰은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술수를 이용한 자본,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사회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침몰 이후의 구조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과 구조체계의 혼란, 구조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구조 실패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인재와 제도 운용의 실패라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었던 것이다. 18년 된 세월호는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한 정부가 아니었으면 수입되지 못했을 것이며, 산업은행이 담보능력 50억 회사에 100억의 대출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또한 이 자금으로 불법 증/개축한 선박의 안정성에 대해 한국선급이 문제를 제기했었다면 연안여객선으로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다. 출항 당일의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세월호는 출항을 감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이다. 선박의 안전과 운항에 관한 법과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정경유착과 야합 등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법과 제도를 농락하고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6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사고의 책임을 배를 개조한 해운사와 해양경찰에 전가했다. 이러한 재판은 보면서 예루살렘 법정에서 선 아돌프 아이히만을 떠올리게 된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정부는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최종 해결책”(Endlösung)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아이히만은 체포된 유대인들을 그들의 마지막 행선지인 아우슈비츠의 강제수용소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였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아이히만이 광적인 희대의 살인마이거나 탐욕스럽고 편집광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가장이라는 데 대해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그랬듯이 매우 놀랐다고 했다. 그는 진술과정에서 유신론자로서 ”신 앞에서는 유죄이나 인간 앞에서는 무죄“라거나 ”나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고,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나 상부의 지시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어휘력은 관청 용어 그 이상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에 대해 ”사유할 능력이 없으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에게는 말하기, 사유, 타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악의 평범함”(banality of evil)으로 개념화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없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악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세월호 선원들에 적용해 보면 부분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사고 체계에서 고의든 아니든 수백 명의 승객들을 죽음으로 내몬 악의적 행동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해답은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 더욱 명백해 진다. 틀린 답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강한 전기충격을 주라는 지시자의 명령에 대해 대부분의 실험자들은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 지시의 순응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시자가 권위적일수록, 그리고 조직적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세월호 참사를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가라앉은 배의 승객들은 객실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권위)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상황이 악화됨을 감지하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참변을 당한 것이다. 권위에 대한 신뢰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탈출한 승무원들에게서도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회사와 끊임없이 통화하면서 승객의安危보다는 회사의 손해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은 1등 항해사가 구조당시에도 회사와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조된 선박직 선원들은 일용직 선원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전혀 내밀지 않았다. 즉 일용직 선원들은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그들로부터 배제된 것이다. 선박직 선원들에 있어 조직(청해진 해운)의安危가 인간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재판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증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악의 평범함과 권위에 대한 복종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악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평범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히만이나 세월호 선원들과 같은 사고와 행위를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즉 우리 가까이에서 때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형태로 혹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잠재해 있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전쟁 때의 수많은 양민학살이나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에 대해 자행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고문기술자인 이근안과 같은 사람도 민주화 투쟁 인사들에게 짐승 같은 고문을 하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대신한다”,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변명과 주장을 하면서 그 어떤 도덕적 판단도 묵살하며 스스럼없이 악을 행했던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나 아렌트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사유할 수 있는 능력, 타자에

대한 감수성 배양을 제시했는데, 필자는 이와 함께 시민정신의 근간인 시민불복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라앉는 배 안의 학생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의심했다라면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탈출한 선원들이 조직의 안위보다 인명을 더 중시했다면 희생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체제와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아이히만이나 세월호 선원들과 같다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명을 담보로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또한 이를 용인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면, 이런 참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의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며 사회학의 사명이자 과제라고 감히 주장해 본다.